

암스테르담의 도시 브랜드로 자리잡은 'I amsterdam'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다) 조형물.



광주일보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도시브랜드 시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미래다’ 펴내

광주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뉴욕·베를린 등 국내외 13곳의 도시브랜딩 전략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도시 브랜드 시대라고 한다. 뉴욕, 런던, 베를린, 멜버른 등 세계적인 문화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프로젝트와 브랜딩을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꾸어가고 있다. 우리지역 광주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문화중심 도시라는 수사 이면에 드리워진 빛고을의 이미지는 아직 뚜렷하게 구축되지 않았다. (물론 5·18을 토대로 한 자유, 민주, 인권, 평화의 이미지는 논외로 한다) 전통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도시 야경이나 밤 시간대 콘텐츠 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다.

리고 있는 국내외 도시들의 현장을 답았다. 저자는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사업은 ‘예술’에만 치우쳐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창의도시의 성패가 달린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기반의 협업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 중에서도 아쉬운 건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전담 조직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올해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7주년이 되는 해다.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도시라는 영예를 갖고,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사업단을 주축으로 페스티벌, AMT 작곡, 홀로그램 극장 오프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는 이르다.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도시를 빛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편’은 부천(문학), 부산(영화), 서울(디자인), 인천(공예), 통영(음악), 전주(음식), 광주(미디어아트)를 다룬다.

광주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시 브랜드 관점에서 다른 책이 발견해 눈길을 끈다.

통영은 지난 1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음악창의 도시로서 발돋움했다. 유지진, 김춘수, 박경리 등을 배출한 문향이었지만 지금은 음악 도시로 더 유명하다. 저자는 통영이 배출한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과 통영국제음악제(TIMF)에서 그 공을 찾는다. 관련 전담팀을 만들고 여러 차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 공감대를 높인 게 주효했다. 지금은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

광주일보 박진현 문화선임기자(제작국장)가 펴낸 ‘도시브랜드 시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미래다’(ENTER BOOK·사진)는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시너지 효과를 누

전주는 지난 2015년 개관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개관에 맞춰 ‘전주부림’을 선보였다. 또한 한식 창의센터를 개설해 음식관련자원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 단순한 맛보기 관광이 아닌 다양한 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식문화를 브랜드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장 ‘매력의 도시들 유네스코 창의도시 해외편’은 일본 가나자와(공예), 중국 상하이(디자인), 호주 멜버른(문학), 오스트리아 린츠(미디어아트)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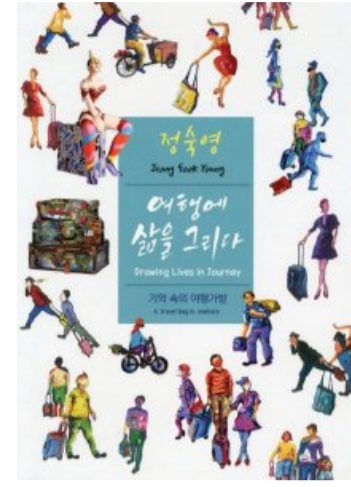
특히 중소도시이지만 매년 7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일본의 가나자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곳을 문화도시로 국내외에 각인시킨 21세기미술관은 ‘열 미술관 부럽지 않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밖에 디자인에 도시 아이덴티티를 가미해 예술가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부상한 독일 베를린을 비롯해, 문화와 출판 인프라로 도시 역사와 자긍심을 높인 호주 멜버른의 사례도 만날 수 있다.

끝으로 박진현선임기자는 조선대 장민환 교수가 지난 ‘202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메시지로 광주의 나갈 방향을 제안한다.

“성공적인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디어아트 서사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미학자, 과학자, 행정가 등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Moving image 5’

나의 ‘여행가방’에 담긴 이야기

서양화가 정숙영 정년기념 ‘여행에 삶을 그리다’ 출간

그의 작품 속에는 어딘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어딘가로 떠나고, 또 어딘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특히 그들이 들고 있는 다채로운 ‘여행가방’에 눈길이 머문다. 그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담겨 있으리라. 단순히 여행에 필요한 도구 뿐 아니라 가방 안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여있지 않을까. 작가는 누군가의 여행가방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며,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갔다.



서양화가 정숙영

서양화가 정숙영 작가가 올해 정년을 맞았다. 중등학교 교사 시절을 거쳐 광주여대 교수로 재직 한 지 40여년. 이제 자신만의 또 다른 ‘여행가방’을 들고 새로운 길에 나서는데 그가 지금까지 작업 세계를 갈무리하는 책 ‘여행에 삶을 그리다’ 기억 속의 ‘여행가방’을 펴냈다. 책 제목은 ‘여행이 미래로 향한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으로 지금까지 여행을 통해 고민했던 창작세계와 전시 테마 등을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다.

1958년 국민학교 1학년 시절, 그림 그리기가 마냥 좋았던 꼬마가 훗날 미술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작가가 돼 수십년을 보냈다. 흠여져 있는 자료를 한 데 모아 ‘시간의 껍질’을 되짚어 보는 건 ‘또 다른 출발’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책은 정 교수의 제자이자 책 디자이너인 김수영 알토란 대표가 직접 제작해 사제간의 아름다운 정도 느낄 수 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교수님의 가르침 덕에 끊임없이 꿈을 꾸며 어린이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꿈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인생의 길라잡이인 교수님의 예술인생을 책으로 엮어 존경의 마음으로 헌정한다”고 밝혔다.

250여페이지 울 컬러로 제작된 이번 책에는 유재길 전 흥익대교수가 1975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정 교수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글이 실렸다. 또 정 교수의 작품세계를 4단계로 분류해 자세히 살펴봤다.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설화적 서정성의

표현에 치중했던 시절(1994-1996), 종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돋보이는 종이회화에 몰두하던 시기(1997-2005),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회화를 집중 탐구하던 시절(2006-2009), 설치미술과 바디 페인팅 작업 시기(2010-2021) 등

이다. 작품 세계를 분석한 섹션에는 작품 세계의 변천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작품 도판과 함께 직접 쓴 연구 발표문과 작업일, 컬럼을 비롯해 전시 개최 기사, 행사 사진 등 숨가쁘게 보내온 예술 인생을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실었다.

책 말미에는 유재길 전 교수가 대답자로 나서 깊이 있는 대화로 정 교수의 삶과 예술활동을 꼼꼼히 살펴봤다. 전남대에서 공부하던 때, 중등교사를 거쳐 어린 아이들을 두고 미국으로 유학 간 사연, 다양한 재료와 기법 실험을 이어가며 작업하는 즐거움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다.

미용 관련 수업을 맡으면서 인체를 캔버스 삼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바디페인팅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도전도 이어졌다. 바디페인팅과 다양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면 작품은 더 빛을 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흥익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 교수는 뉴욕·시드니 등 국내외에서 22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뷰티 드로잉의 이론과 실제’, ‘색채 미학’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 광주비엔날레 이사, 한국미술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ACCO야경.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